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에 4조7000억 투자

2014년까지 8개 사업 추진계획... 270만명 고용효과 후관 700만t 생산체제... 세계 최대 철강회사로 우뚝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연산 200만t 규모의 후관공장 준공에 맞춰 오는 2014년까지 4조7000억여원의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4일 광양제철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5 코크스공장, 광양부생복합발전, 6선석 부두건설, 4 열연공장, 5 소결공장, 포스하이메탈, 포스화인, SNG(합성 천연가스)건설, 3·4항로 준설 등 총 8개 신장설 대규모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연인원 270만명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광양만권 전역에 경제 파급효과를 올 것으로 보인다.

광양제철은 지난 28일 연산 200만t의 생산능력을 갖춘 CPL(Coil Packing)설비시설이 600억원을 들여 신설된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은 자동차관련 전문제철소로서 2018년 '매출액 100조 달성'이라는 글로벌 NO.1 기업의 위업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광양시도 포스코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비해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의식변화 설명회 및 상생분위기 조성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준식 광양제철 소장은 "현재 기업과 지역민이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돼 있어 향후 포스코 패밀리사와 함께 지역 복리증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모범적인 기업 이미지 창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순천만, 3D로 세계인 눈길 확~

박람회 주제영상 선정... 해외홍보·영화제 참가

최첨단 3D 입체영상으로 제작한 순천만 풍경이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3D콘텐츠 제작 지원공모사업'에서 순천시가 응모한 박람회 주제영상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주제영상물 제작을 위해 순천시는 1년 전부터 기획, 3D·CG기술, 영상, 콘텐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해외 홍보를 위해 국제방송교류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3D 입체 영상으로 제작하는 주제 영상물(15분 분량)은 오는 2012년 말 완성해 박람회 기간동안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영상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 홍보방송과 해외영화제 등에도 참가 국제사회에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의 생태관광매력을 알리는 점병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완도군 2014년 해조류 박람회 개최키로

완도군이 '2014 해조류 박람회'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군은 세계 해조류 생산량의 1%를 차지하는 해조류 건강 바이오 특구의 위상에 걸맞은 해조류 박람회 추진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

군은 2014년 4월 18일부터 24일간 '바다 속 청정지구와의 조우'를 주제로 해양문화기반 축제형 박람회인 F-엑스포(Festival-EXPO)를 열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해조류 박람회 기본 구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행정구역이 아닌 바다를 중심으로 인근 지자체 간 연계하는 지역 협력형, 전시와 역사문화 생태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자원 연계형 박람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해조류 미레관, 해조류 건강관, 국제산업관, 해양문화관, 체험관, 해상 특별기업관 등 모두 6개의 전시관을 운영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구체적이나 AI 등으로 점차 오염되어 가는 육지 식량 문제를 청정 바다에서 해결하고 국가 해조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국가 해조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생산적인 박람회를 정부에 제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완도군 관계자는 "구체적이나 AI 등으로 점차 오염되어 가는 육지 식량 문제를 청정 바다에서 해결하고 국가 해조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국가 해조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생산적인 박람회를 정부에 제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곡성군 심청의 가치 재정립한다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 효 문화엑스포 개최 등

'효녀 심청의 고장'으로 알려진 곡성군이 심청 효(孝)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곡성군은 심청 축제 11년째를 맞아 올해 심청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심청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청과 효를 중심 내용으로 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곡성군은 지난 2000년부터 심청축

제 개최를 비롯해 ▲심청 이야기 마을 조성 ▲심청 축제 개최 ▲심청 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군의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정립시켰다. 군은 앞으로 효 문화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효 체험 시설, 효 박물관, 효 관련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효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의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차마을 등에 분산돼

새얼굴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민중기 화순군 부군수



“생명·의료 메카인 화순군이 지속발전 선진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열정을 보태겠습니다.” 이라 고 강조했다. 화순 청풍면 출신인 민 부군수는 지난 1978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전남도 해양수산국 환경정책과장·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정옥씨와 사이에 1남 2녀가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전북, 전략산업 이끌 고급인력 양성

9대 클러스터 조성 '취업연계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학과개설 비용절감 위해 도내 연구기관 인력 활용도

전북도가 '전략산업 9대 클러스터' 조성을 이끌어갈 고급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배출되는 우수 인력이 수도권 대신 도내에 정착해 전략산업 9대 클러스터 조성을 주도해 가는 선순환의 고급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취업연계 산학협력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산업 고급인력 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고급인력 양성 종합대책=도는 지난달 가진 도내 대학총장단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포함해 9대 클러스터별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고급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대학측과 의견을 조율한 뒤 종합계획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최우선적으로 기업과 대학이 취업협정 협약을 체결하여 학과를 운

합 기술분야의 '특성화 대학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북대 태양광 특성화대학원의 전임교수 확충 등 운영 내실화를 비롯해 ▲전북대 인제전자 일반대학원의 전문대학원 전환 ▲KIST 학원협동과정 조기개설(탄소소재)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추진일정=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그린자동차, 조선해양, 풍력, 탄소, 고분자·신소재융합, LED 농생명 등 최소한 6개 분야의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개설을 목표로 고급인력양성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클러스터별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늦어도 5월까지 전략산업분야 고급인력양성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또 6월중에는 대학·기업·연구기관·도가 참여하는 '취업연계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부안에 국내 최대 청자전시관 7일 개관

국내 최대 규모의 청자전시관이 부안에 문을 연다. 부안군은 '옛 삼강청자 도요지'로 사적 제69호인 보안면 유천리 일대 7만㎡ 부지에 3층 규모의 '부안 청자전시관'을 7일 개관한다"고 4일 밝혔다. 청자도요지 복원사업으로 건립된 청자 전시관은 255억원을 들여 유물 전시관, 도자체험·교육관, 도요지 공원 등을 갖췄다. 전시관에는 부안 청자의 발생과 변천과정, 유전도요지 소개, 삼강청자 및 진품 도자기, 출토된 청자 조각을 볼 수 있도록 청자 역사실, 명품실, 도관실, 수장고, 제작실, 전시실 등이 마련됐다. 도자체험·교육관에서는 전통



청자의 제작과정을 살펴보고 삼강청자를 비롯한 도자기를 체험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윤길호기자 y2011@

전북



“잘 자라거라”

3월 불비가 내리는 가운데 농부들이 정읍시 금봉동 밭에 1년생 리얼리 묘목을 옮겨심고 있다. 밭 가장자리에 핀 산수유꽃이 비를 머금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버스파업 해결 나선 민주당

전북도당-민노총 간담회, 교섭재개 촉구

민주당 전북도당과 민노총이 전주버스파업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췄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민노총 버스파업투쟁본부는 지난 31일 도당사에서 김춘진 도당위원장과 김성주 도의원, 장태영 시의원, 박규섭 도당 사무처장 등 주요 당직자와 민노총 노조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교섭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민주당 당론"이라며 "버스파업 해결을 위해 민노총 지도부의 의견을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과 제도에 맞춰 파업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도당과 민노총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성주 도의원은 "공권력 투입 당시 현장에 있었고 특위구성안 또한 발의했다"며 "현실에 부합해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태영 시의원은 "교섭 재개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파업 문제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노조원들은 "114일을 맞은 버스파업 해결을 위해 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주당이 대변해야 한다. 합법 파업 중인 민노총에 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당론을 따르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사실상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중앙당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신

전북농기원, 저온기 수박재배 신기술 개발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저온기 수박 재배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개발된 '심토파쇄 경운(밭갈이)기술'을 활용해 수박을 재배하면 일반 경작 때보다 수박의 무게가 평균 2.3kg 늘고 당도 또한 높일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문화원 보관유물, 근대문화역사박물관으로

군산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문서 및 도자기류 등 유물 240점이 오는 8월 문을 여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보존된다. 위탁 유물들은 군산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서전대전 등 고문서류 134점과 빗살무늬 토기류 등 도기 및 토기류 106점 등 240점이다. 위탁된 유물 중에는 조선시대 관청에서 발급하던 증명서인 안문(完文)과 조선시대 호적 등본이라 볼 수 있는 호구단자 그리고 조선 후기 토지매매문서 등과 청동함, 옹관편, 청자접시, 백자접시 등이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 샘골환경사업단, 폐지전거 재활용 사업

정읍시 2011년 자활근로 민간 위탁업체인 정읍지역 재활용센터(센터장 김복례) 샘골환경사업단이 지난월부터 버려진 자전거나 폐지전거 수거 및 수리, 시민자전거가 활성화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달 주택가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자전거나 폐지 전거 39대를 수거, 수리해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및 판매해 자립기반을 다지는 물론 시민자전거가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 자전거 코스를 개발, 시티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농기센터, 군민 대상 웰빙음식교육 '호응'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군민을 대상으로 웰빙음식 교육을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생활요리반 ▲전통병과반 ▲사찰음식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돼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며, 전통병과반은 전통 떡과 한과 만드는 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중에는 제과제빵반을 개강, 홈페이지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